

自然的 要因으로서의 實存空間 및 形態 Design에 關한 研究

- 韓國의 線과 圓軸形을 中心으로 -

A Study of Existential Space and Shape Design under the Influence of Natural Factor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Line Axis and Round-

오인완*/Oh, In-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a shape produced by natural factors such as weather, environments, etc., can be introduced into the emotion of a design, and to make a design process by planning a Korean image and characterizing its concept.

Human beings, nature, man-made objects, and society have their own functions in an environmental structure. When all their functions are kept in working order, human beings come to discover orderliness out of which they can absorb pleasure. They cannot look into their own inside but they can trace back in their memories a variety of panoramic experiences which have been embed-

ded onto their identity during their lifetime interactions with an empirical world.

Children first acquire a way of cognition in the space, a comprehensive premise, connecting a specific place and an object of cognition. Such subconsciousness forms skylines of mountains, seas, and trees under the sky, and produces axis lines and beehived domes under the influence of natural, cultural, and social factors, forming a folk culture. A subconscious composition of existential space is extended to the areas of environmental design, product design, and fashion design. The development of a concept of place and space as a system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discovering an existential foothold.

1. 序論

1-1. 研究의 目的과 意義

人間은 環境이라는 構造속에서 人間, 自然, 人造物, 社會 등의 要素들로서 그들이 각기 機能을 갖고 있으며 이 機能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快感을 주는 秩序인 造形性을 發見하게 된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內部를 볼 수는 없으나 環境에서 얻은 經驗世界와 生涯에 걸쳐서 만나는 사이에 우리들의 아이덴티티(Identity)의 感情에 박힌 經驗의 과노라마를 內裝한 內部世界의 여러 가지 記憶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것은 먼저 어린이가 世界를 유이성의 體系로서 構成하는 것 - 즉 "認識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認識한 對象을 보다 包括적인 前提인 "空間"에 位置시킴으로써 特定한 "場所"와 認識된 對象을 連結시킨다. 따라서 場所概念의 發達과 場所의 體系로서의 空間概念의 發達이 實存的인 根據地(Existential Foothold)를 發見하기 위한 必要條件인 것이다. 이런 潛在意識이 地域의 環境에 따라 하늘사이에 산, 바다, 나무들에 의해 Skyline을 이루고 視覺적으로 느끼며 成長하여 自然的 要因, 文化的 要因, 社會的 要因에 影響을 받아 하나의 脈을 이룬 線이 생기고 구심적 축의 원이 생기며 그 民族의 文化形態를 낳게 된다. 이 潛在意識 實存空間 構成이 오늘날 알게 모르게 Environment Design, Product Design, Fashion Design에 이르기까지 內外空間을 둘러싼 Shelter의 領域을 擴張하고 넓혀가고 있다. 이런 自然的 要因이 낳은 形態를 Designer의 感情에 따라 도입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고 예측할 수 있는 目標을 향해 韓國의 Image를 計劃하고 정리하여 概念과 特性을 올바르게 把握하여 우리의 것으로 適用, 接近하는 方法을 摸索함으로써 모든 行爲 곧 Design

Process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意義와 目的이 있다.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環境과 自然이 우리에게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를 原因을 分析하여 韓國의 線과 圓軸形을 再定立하고 그 特性을 造形概念과 具體적으로 表現方法인 空間構成原理로 나누어 定理하여 그 形態를 우리의 것으로 適用하는데 있어서 드러나는 問題點을 把握하여 디자인 解決方案의 根據로 삼는다.

- 1) 圓形의 本質的인 發展過程의 이미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韓國의 圓軸構成인 歷史的 記憶의 이미지를 定理하는 課程이다.
- 2) 自然的 要因이 形態와 空間디자인에 影響을 준 意味를 提示한다.
- 3) 圓軸의 要素들이 變形 歪曲 發展시킨 것과 自然이 준 圓의 이미지가 韓國의 線으로 發展된 意味를 부여한다. 形態 要素들의 變形 歪曲 發展시킨 것과 自然이 준 圓의 이미지가 韓國의 線으로 發展된 意味를 附與한다.
- 4) 韓國의 맛과 韓國人의 習慣을 다루며 造形視覺要素를 提示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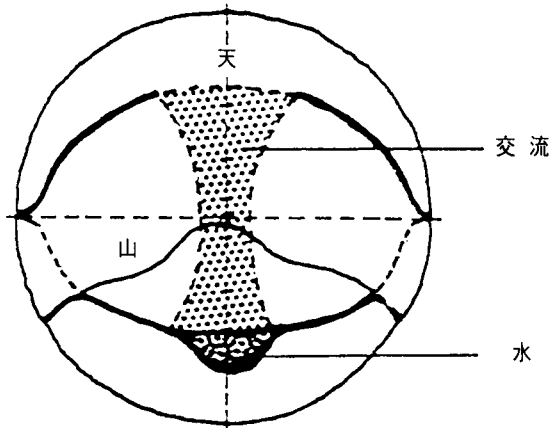
2. 自然環境의 特性으로서 空間形態의 發展

2-1. 古代文化의 生活樣態와 圓形의 概念

人間은 그에게 주어진 自然環境이 生活의 對象이자, 生活領域이 되기 때문이다. 西洋에 있어서 宇宙觀은 單元論과 多元論으로서 B.C 588년 Thales가 "宇宙의 本質은 물이다."라 하며 물에는 永遠성과 自然性과 變化性이 있다고 말했다. 이 宇宙觀은 原始人들의 自然에 對한 神祕와 恐怖에서부터 緣由된다. 農耕이 始作되면서 自然力에 對한 研究의 對象은 太陽을 中心으로 始作되며 太陽의 움직임은 循環的인

*정회원, 한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圓形을 象徵하고, 太陽이 뜨고 지는 地點을 方으로 하여 東. 西. 南. 北의 方向感覺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곧 宇宙의 方을 象徵한다. 이러한 宇宙의 形態는 西洋에서도 同一하게 나타난다. 바빌로니아인, 희랍인들은 하늘을 별들이 박힌 바퀴로 그렸으며 그리스인은 自然스런 움직임을 圓形이라고 생각하며 圓形을 宇宙의 象徵으로 認識하게 되었다. Aniela Jaffe는 '圓形은 精神世界의 象徵이다'라고 하였다. 플라톤은 일찍이 精神을 球形에 比喻해서 說明하였다. 圓의 概念은 하늘의 自然現象에서 그 形態가 意識되었다. 宇宙의 生成과 그 形態에 관한 觀念도 여기서 發達하였으며 原始的 土俗信仰도 여기서부터 始作된다. 古代 中國에서 "圓의 概念은 하늘을 自然現象에서 그 形態가 意識되었다... 그런데 이 圓은 반드시 正圓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圓周에 角이 없고 규칙성을 가진 圓弧를 이루고 있으면 곧 圓의 概念에 포함되었다"고 말하고 細部的인 表現으로서 "清대의 段玉裁는 그의 《說文解字注》에서 許慎의 《解字解字》의 圓天體也를 풀이하면서 許慎說文에서 圓, 圓, 圓의 3字는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에 의하면 天은 圓이라고 해야하고, 平圓은 圓이라고 써야하며, 渾圓을 圓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中國인의 宇宙에 관한 觀念의 象徵을 意味한다. 圓은 天을, 主宰하는 神을 意味하며 그 宰를 祭祀하는 祭壇을 圓丘라고 한 것은 하늘이 둥글기 때문에 天을 象徵한 것이다. 이렇게 하늘을 自然의 天인 圓, 圓의 現象의인 것이 土俗信仰의 對象이 되면서 절대적인 存在로 象徵되었다.¹⁾



(그림 1) 宇宙의 象徵으로서의 形態 聚落의 宇宙의 概念圖

象徴이란 知覺된 環境의 對象物을 통해서 未知의 것을 表現하는 方法만이 아니라 生命이나 表現 不可能의 느낌을 暗示할 수도 있다. 象徴에는 意識의 象徴과 無意識의 象徴, 個人的 象徴과 集團의 象徴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個人的 象徴은 個人的 集合體인 集團의 여러가지 象徴의 根源이 되며, 그 個人을 둘러싸고 있는 集團의 象徴은 個人的 象徴 形成에 影響을 준다. 이것은 하나의 文化的 產物로 還元된다.²⁾

2-2. 自然環境과 視知覺의 意味가 韓國의 線에 影響을 준다.

"自然은 남는 것을 줄여서 不足한 것을 補充한다."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우리가 自然現象속에서 瞬間적인 存在들을 서로 聯關시켜 볼 때 그 自然現象들 相互間的 時間的인 變化를 한 觀點에서 綜合해 보면 自然現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意味를 나타내고 있다. 노자에게 있어 이것은 特別히 重要な 要點이며, 實在(Reality)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自然을 理解하는데 重要的 것은 自然機能의 "Process"이며 오직 그 機能에 대해서만 아마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Design" 된 實存(Existence)의 法則이 啓示되어지는 것이라고 노자는 생각한다.³⁾

空間속에서 사람의 經驗은 嗅覺, 聽覺, 觸覺 및 溫濕度의 複合感覺들을 包含한다. 이 感覺들은 感覺原因이 되는 對象物과 사람 位置간의 距離感覺에 基지한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視覺만큼 重要하지는 않다. 正常的인 사람이 눈 아닌 다른 生理器官을 통해서 個別的 및 複合的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形態에 의해 刻印되며 또한 相補的으로 結合되어있다.

感覺의 여러 問題에 直面하여 建築家は 사람이 有形的 要素들의 關係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특히 責任이 있으며, 이 有形的 要素들은 空間 안에서 實在하는 느낌을 사람에게 주면서 直接, 間接으로 모든 다른 感覺을 刺戟한다. 특히 流線인 우리나라 韓國의 산의 Sky Line이 우리에게 준 意味는 매우 크다. 潛在된 視覺 訓練으로 發達된 Sky Line이 하나의 圓을 이룬 韓國의 線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魂인 둥근 圓을 象徵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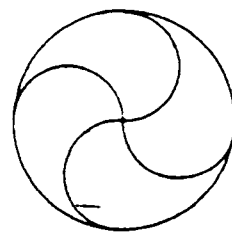
"象徴的 思考와 象徴的 行動이 人間生活의 가장 特色있는 面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리고 人間文化의 進歩 전체가 그 條件들에 基礎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일이다.

2-3. 우리나라 옛 造形의 意味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古建築의 研究 結果들을 보면 形式的 構成의 點에서 觀察하는 態度가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時代精神은 무엇인가 정신사적 側面에서 그것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意味가 깃든 것을 알 수 있다.

現代 우리 東洋인 大衆의 生活에 3가지 뿌리깊게 내려있는 古代思想을 分析하여 보면 수의 神祕性과 天文에 관한 概念이 지극히 複雜하게 얽혀서 무수히 가지를 뻗고 있다. 그 결과 옛 造形藝術에도 크나큰 影響을 미친 것으로 안다.

中國 科學史의 權威者 야부우찌 기요시에 의하면 "中國에는 옛부터 河圖, 洛書의 傳說"이 있었다. 이 河圖나 洛書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1世紀의 朱震이라는 學者가 이것을 처음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에 의하면 河圖는 1에서 9까지, 洛書는 1에서 10까지의 數를 道상화하여 配列한 것으로서, 특히 河圖는 가로, 세로, 및 對角線상의 數의 和이 모두 15가 되는 方輿이다. 이 河圖, 洛書는



(그림 2) 古는 天地創造와 陰陽의 結合으로서 生成의 原理 象徴的 記號(Symbolic sign)

4	9	2
3	5	7
8	1	6

(그림 3) (5,1,6), (5,7,2), (5,3,8), (5,9,4) 순으로 숫자를 연결하면 卍자가 된다. 天地創造의 理致를 담고 象徴的 圖形으로서 敍사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된다.

1) 崔宗鉉, 古代聚落의 空間構造 建築士, 1981, 5, No146, p27

2) Ralphe, Anderson 人間行動과 社會環境 張仁協 共譯, 集文堂 1988, 2, p103

3) Amos ih Tiao Chang 著, 建築空間과 老子思想, 尹長燮譯, 技文堂

4) 아모스 라포포트, 居住環境와 文化, 李 揆譯, 1985, 29, 悅話堂

南宋時代에 이름이 거꾸로 되어, 옛날 河圖가 洛書로, 洛書가 河圖로 되었다⁵⁾ …… 河圖와 洛書의 그림은 朱震의 冊에 따르면, 北宋 初의 有名한 道敎徒 진단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여하간, 洛書에서는 무엇보다도 암유적인 것을 찾아 낼 수가 있다. 그것은 洛書의 數들도 河圖의 數들과 같이 天地創造의 理致를 象徵하고 있으므로 河圖에서와 같이 3개의 數의 組合을 만들면 나타난다. 즉, (5·1·6), (5·2·7), (1·5·3·8), (5·4·9)에서 數의 配列을 天, 天, 地의 順으로 方陣에서 그 數들을 連結하면 卍자가 된다. 그러므로 卍자는 (그림 2) 天地創造의 理致를 담고 象徵的 圖形으로서 洛書에 內包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河圖와 洛書는 數의 神秘성과, 圖上으로는 河圖가 十字形 指向性을, 洛書가 卍자형 指向性을 지니고 宇宙生成의 原理를 內包하여 옛 造形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3. 圓軸과 線의 實存空間

3-1. 中心과 場所 그리고 圓

知覺의 自發的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人間의 空間은 主體를 軸으로 하여 中心化되어 있다. 그런데 魏마의 發達은 中心軸에 대한 觀念이 一般的인 組織化의 手段으로서 設定된다는 것을 意味할뿐만 아니라, 一정한 中心郡이 環境 속에서 參照點(Point of Reference)으로서 〈具體化〉(Exfernalized)되는 것도 意味한다. 이러한 要求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먼 옛날부터 人間은 全世界를 中心化된 存在로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수많은 傳說 속에는 "世界의 中心"이 垂直的인 〈世界軸〉(Axismundi)을 象徵하는 樹木이나 기둥으로 具體化되었으며 산도 역시 하늘과 대지가 만나는 接點으로 여겨졌다. 古代 그리스인들은 "世界의 中心"(Omphalos)을 Delphoi에 놓았으며, 그 반면 古代 로마인들은 그들의 카피톨리누스 언덕은 〈世界의 頂上〉(Caput mundi)으로 생각하였다. 〈世界의 中心〉이 이렇게 理想的이며 公共的인 目標, 즉 〈失樂園〉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집〉(Home)이라는 말도 역시 이와 비슷한 具體的인 意味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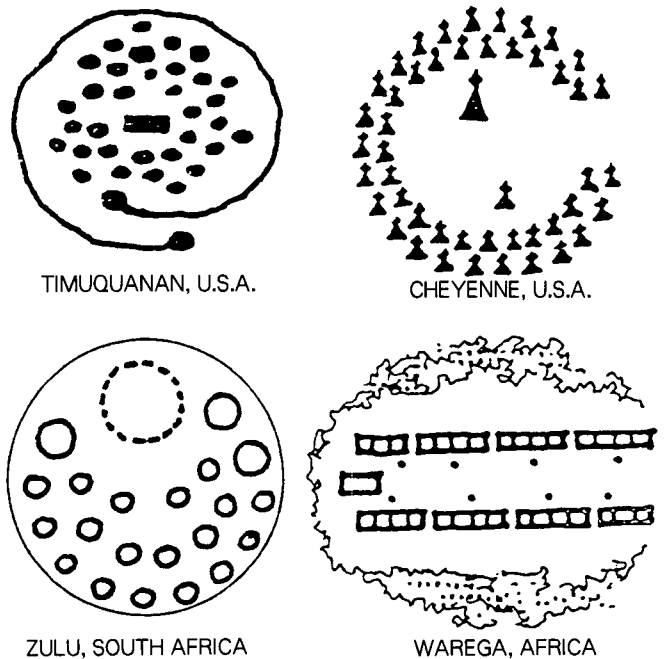
〈집〉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個人的인 世界에는 中心이 있다는 것을 簡明하게 나타내고 있다. 처음부터 中心은 人間에게 周圍에 펼쳐지고 있는 未知의 世界, 무언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世界와는 對照的으로 이미 알려진 것을 뚜렷이 밝혀준다.

中心은 人間이 생각하는 存在로서 그 空間 속에서 位置를 獲得하는 점, 즉 人間이 空間 속에서 '遲滯하며' '生活하는' 점이다. 모든 中心은 〈行爲의 場所〉 즉 特別한 活動이 修行되는 場所이며, 단 親戚이나 親舊들의 家庭이 그러하듯이 社會的인 相互作用이 일어나는 場所인 것이다. 즉, 場所는 그것을 둘러싼 〈外部〉와는 對照的으로 〈內部〉로서 體驗되는 것이다.⁶⁾ 이미 알고 있는 場所는 크기가 限定되어 있으므로 自然히 中心化된 形態를 갖게 된다. 中心化된 形態란 본래 〈求心性〉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場所는 基本的으로는 〈圓形〉이다. 이러한 關係에서 Karl Jaspers의 말을 想起하는 것은 興味깊은 일이다. "모든 實存은 본래 圓形으로 나타난다."

圓形은 中心과 그것을 둘러싸는 圓周라는 두가지 要素로 되어있다. 사람들은 손과 손을 잡고 圓周에 의해 結合되어 있으나 이런 結合을 이룬다고 완전히 吸收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視點은 자유롭다. 生命은 이런 視點을 통하여 衰退하였다가 다시 現實性에 充滿하여 되돌아온다. 視點은 共通的인 焦點으로서의 中心으로 보인다. 이런 中心點에서 사람들은 結合된다. 그러나 그것은 個人이 孤獨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향한 內的인 진정한 길은 中心을 지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만남은 바야흐로 意味의 共通的인 中心에서의 만남이 된다. 中心과 圓周 사이에는 하나의 별 모양이 形成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實存을 周圍의 世界로 전한다. 近接性, 中心性, 限界性과 같은 여러가지 概念은 동시에 作用하여 보다 具體的인 實存의 概念을 形成하게 된다.⁷⁾

人間에 의해 이루어지는 文化는 生活環境에서 自覺되는 心象(image)의 表現이다. 心象의 表現이란 人間의 感賞思考力과 物理的인 能力이다. 人間에 주어지는 物理的限界(운동의 테두리)는 하나의 球體를 이룬다. 이 球體는 한 個人에 의해 形成되는 小宇宙 領域이라 할 수 있는 象徵物로서 圓은 가장 單純한 圖形이기 때문에 커다란 힘을 가지며 圓形과 球形은 어의상 같고 人間의 個人的인 空間, 窮極의 投影이다. 人間은 독특한 조직적인 우주 질서의 개념에 도달하는 것은 이 새롭고 특색있는 형태의 공간(우주관)을 媒介로 해서이다.⁸⁾ 이같은 질서의 관념은 인간이 超自然力과의 생활 공동체적 사회생활의 실투영 집단적 상징의 圓의 개념적 표상이다.



(그림 4) 人種別 聚落의 形態 古代 聚落의 空間構造를 구성하는 요소는 圓形을 중심으로 集合의 領域, 住居의 영역으로 확보해 나간다.

圓은 造形心理學的인 兩面性을 가지며 宇宙의 概念에서는 內的인 觀念과 함께 存在者에게 Center의 觀念을 浮刻시킨다. 이것은 中心的인 方向性을 가지며 中心에서 있다. 古代人은 生과 死에 의해서 限界지어지는 有機的인 生命의 象徵化, 土地를 包含하는 自然環境의 象徵化, 生活에 必需 不可缺한 象徵化, 人間의 社會的인 地位와 人間의 生殖作用을 營爲하고 그 結果 子孫을 갖게 되는 象徵化 言語를 통한 意思傳達 樣式的 象徵化에 의해서 左右된다. 圓形을 形象짓는 太初의 祭儀 執行者들은 하늘과 땅을 地上과 地下를 그리고 빛과 어둠, 比岸과 彼岸을 잇는 그 機能을 現代의 世俗社會에서 知識과 哲學, 詩와 藝術, 法과 戰爭을 遊戲적으로 沈澱시켜놓고 있다. 古代聚落에서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聖域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동물, 돌, 물, 해와 달, 비람, 場, 산, 언덕, 수원) 聚落마다 갖고 있는 境界가 되는 轉轉國이 되는 土地의 비슷한 地形등을 지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古代人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것이 形式과 內容을 가지고 있으며 象徵的인 意味가 內包되어

5) 宋 攷 求, 우리나라 옛 造形의 意味, 建築士, No178, 1984, p48 No179, p48

6) Christian Norborg-Shulz-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金光鉉譯, 대림문화사, 1985, p34

7) Walter Gropius, 生活空間의 創造, 崔俊濤譯, 한국이공학사, 1979, p119

8) K. C. Bloomer, 身體·知覺 그리고 建築, 李好璣譯 1985, 4, p58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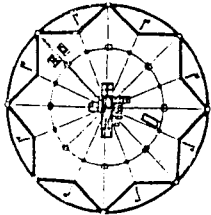
3-2. 軸(Axis, Asse)의 意味

軸(Axis): 基本的으로 2개의 地點 또는 그 以上の 點을 連結하는 線의 要素로 直線 또는 曲線的으로 連結하여 視覺的 秩序를 維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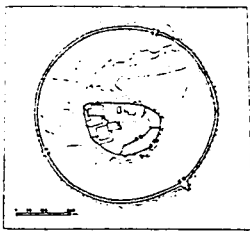
1) 軸이란 무엇인가?

幾何學에서는 하나의 平面圖形을 어떤 直線의 주위로 回轉시켜 立體圖形을 얻을 때의 그 直線을 말하는 것으로 圓錐의 軸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또 解析幾何學에서는 어떤 點의 位置를 정하기 위하여 정한 基準直線을 말한다. 工學分野에서는 回轉體의 動力傳達를 主目的으로 하는 등근 막대기로서 主軸, 線軸, 中間軸의 세 種類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建築에서의 軸이란 이와는 다른 概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建築平面, 建築配置에 있어 어떤 直線을 中心으로 左右가 對稱이 될 때, 이 直線을 그 建築平面, 配置의 中心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三次元的으로 생각할 때, 어떤 建築空間은 어떤 垂直線을 中心으로 그를 둘러싼 空間이 서로 對稱的으로 分解될 수 없을 때, 이 垂直線을 하나의 軸으로 생각할 수 있다. 軸의 象徴性과 軸의 通路로서의 役割은 바로 建築에 있어서 軸이 갖는 意味이며, 또 軸이 發生된 動機이며 또한 人間이 왜 軸을 좋아하였는가를 말해 주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人間은 指向的인 動物이라 할 수 있다. 現在의 時間에서 未來의 時間으로 향하는 時間的인 指向性과 한 場所에서 다른 場所로 移動하는 指向性을 갖는다. 이 때 가장 적은 時間과 가장 강한 印象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軸은 中心軸일 때 더 한층 強烈한 空間情緒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Filarete 에 의한 "理想都市"의 軸으로 이루어진 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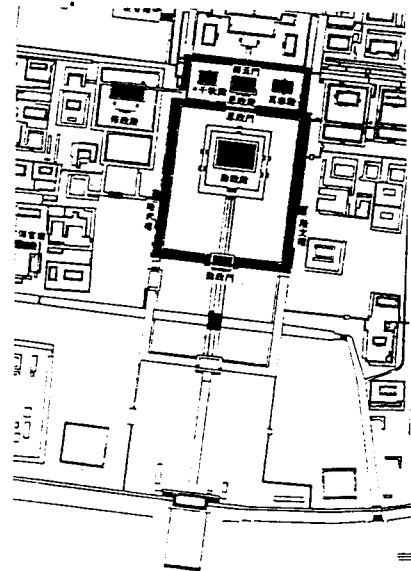
〈그림 6〉 Andolid 地方에 있는 Cincirli 요새

中心軸이라고 하는 것은 人間이 圈內에서 活動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關係된다. 圈內란 人間社會에 있어서 中心的인 人物이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人間이 圈內를 떠나 圈外로 移動하였을 경우 강한 疎外感을 갖게 된다. 이러한 關係로 人間은 먼 옛날부터 建築空間의 創造에 있어서는 어떤 軸을 設定하였고 특히 帝王과 같은 權座에 앉은 人間으로서 이들 軸이 자신이 위치한 場所에 集中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⁹⁾

2) 韓國建築과 軸

朝鮮時代의 建築은 비교적 다른 시대와 달리 많은 現存 유적이 있어 건축에 나타난 軸의 高찰이 용이하다. 우선 조선 開國과 더불어 시작된 新王都의 건설에서 王宮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都市計劃的인 水平軸과 이에 直交되는 副次的인 수평축의 발생을 볼 수 있다. 즉, 光化門,

景福宮의 勤政殿 등의 中心을 있는 子午線과 일치되는 水平主軸과 이와 直交되는 鐘樓의 가로를 연결하는 부차적 수평축들이 바로 朝鮮時代人들이 都市空間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軸의 存在이다. 朝鮮時代에 뚜렷한 軸의 活用으로 傾斜軸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山地形 佛寺配置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韓半島의 地形과 風水地理의 影響으로 비단 佛寺만이 아니라, 書院, 鄉校, 기타 住宅들의 中心空間에 접근하는 主通路는 항상 傾斜路와 일치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朝鮮時代의 木造建築에서 法主寺 別墅전이나 雙鳳寺 大雄殿과 같은 木造塔은 외부공간에서나 내부공간에서 강한 垂直軸의 存在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垂直軸은 景福宮의 勤政殿을 中心으로 前後 左右에 배치된 各殿閣들의 斷面에 나타나는 垂直軸들이 勤政殿이 가장 강하고 다음 前後로 점차 약해져감으로써 水平軸의 中心과 함께 어떤 視覺上의 gradation을 이루는 것은 꽤 흥미롭다. 이상의 고찰로써 韓國建築에 있어서는 水平軸, 垂直軸, 傾斜軸, 放射軸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旋回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景福宮의 光化門, 勤政殿, 思政殿, 康寧殿 등의 主殿閣들을 있는 主軸이 바로 子午線과 一致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¹⁰⁾ 日本 침략자들이 朝鮮總督府 新築時 이 軸을 무시하고 올바른 正南向이라는 미명하에서 새로운 軸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軸의 중요성에 그 이유가 있다. 朝鮮時代의 宮闕 建築에서는 비단 主軸만이 아니라 많은 二次的 副軸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의 實例로 景福宮의 慶會樓의 中心軸은 景福宮의 主軸과 直交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主軸과 副軸의 複合성은 비단 宮闕 建築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朝鮮時代의 文廟, 書院 등과 佛寺建築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梁山 通度寺에서는 一柱門, 天王門을 있는 水平軸과 이 佛寺의 主殿인 大雄殿의 主軸인 水平軸은 直交되며 기타 다른 大小殿閣들 역시 서로 直交됨을 볼 수 있다.¹¹⁾



〈그림 7〉 景福宮 配置圖

3-3. 韓國의 線과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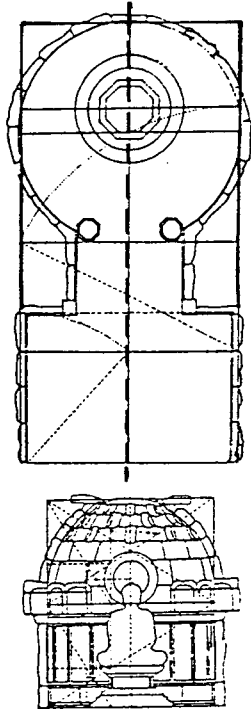
1) 지붕의 概念

西洋建築과 比較하여 볼 때 東洋建築 특히 中國系 木造建築 특히 中國系 木造 建築에서 지붕을 단순한 外部의 自然環境으로부터의 保護 以上の 意味를 지녀왔다. 지붕은 超自然的인 災殃으로부터 保護받고자 하는 防衛的 意味와 建物 全體의 性格 地位를 規定하는 의장과 造型도

10) 朱南哲, 人間, 建築 그리고 軸(Axis) 建築士 1976, No89, p13

11)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8, 4, p118

9) 朱南哲, 人間, 建築 그리고 軸(Axis) 建築士, 1985, No89, p10



(그림 8) 석굴암 平面圖 斷面圖

갖추었다. 이와 같이 지붕에 特別한 意味를 附與하여 왔지만 傳統的 建築觀과 對比하여 볼 때 現代建築에서 갖는 지붕의 意味는 너무나 貧弱하다.

傳統建築의 繼承이 대두될 때 지붕 形態가 심사리 復活되었던 것도 과거의 지붕 重視思想이 우리의 建築觀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데서 나타난 反作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 지붕선의 線은 流線한 曲線의 圓滿하게 이루어진 산의 概念과 그 Skyline에 附合되어 自然과 함께 어우러져 있고 익히 우리들은 어릴적부터 視覺的으로 環境에서 얻은 經驗的인 世界와의 生涯에 걸쳐서 만나는 사이에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의 感情에 박힌 特有的인 認識하는 것을 배우고 더욱 發展的인 圓의 概念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選好的인 우리의 線을 찾아 부드럽고 圓滿한 韓國의 지붕線이 준 意味를 比較·分析해 본다.

2) 韓國建築 樣式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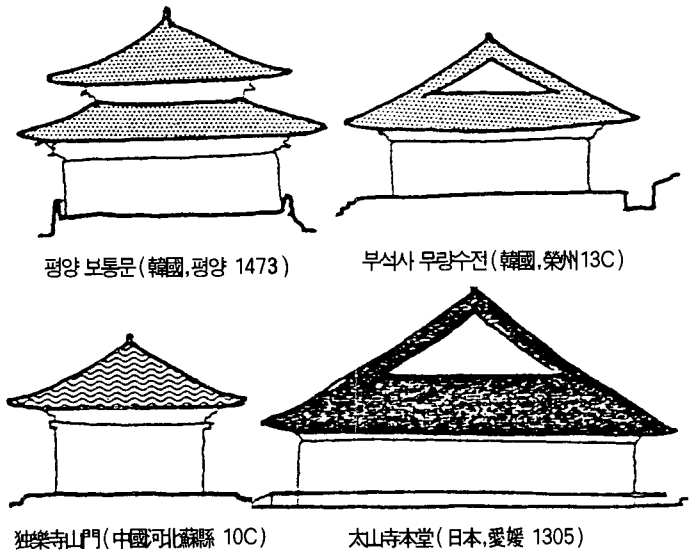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 祖上들이 살아온 建築物(宮闕, 寺刹, 民家 등)이 옛 모습대로 많이 남아있어서 그 模樣을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것은 네모난 그릇에 담긴 물은 네모가 되며 둥근 그릇에 담긴 물은 둥글게 되는데(老子 道德經) 建築은 바로 사람을 담는 容器이며 따라서 韓國建築은 바로 우리 祖上들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의 特徵은 韓國의 流線한 曲線의 山 image와 거기에서 나온 線이 軸을 中心으로 묶여진 曲線 그 自體가 韓國的인 지붕인 것이다.

韓國建築의 지붕의 特徵은

- ㄱ. 지붕의 線이 曲線이다.
- ㄴ. 지붕의 比重이 壁에 비하여 過重하다.
- ㄷ. 曲線의 中心이 建物 外部에 있다.

韓國建築은 그 지붕이 曲線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지붕의 曲線은 아래로 옥은 曲線다. 즉, 용마루선에서 中央部가 낮고 양쪽 끝이 치켜져 높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처마선의 曲線도 마찬가지로 中央部가 쳐져 있으며 양쪽 추녀있는 부분이 높이 올라가 있다. 또한 지붕의 面 自體도 옥은 曲線이다.¹²⁾ 이렇듯 옥은 지붕인 것은 建築物의 構造

와 大小에 關係없이 大部分의 기와지붕에서는 모두가 같이 되어 있다. 이와같이 옥은 曲線을 가진 지붕의 形態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大部分의 外國 建物의 模樣은 그 지붕의 中央部가 높고 左右가 낮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建築의 特徵 중의 하나로 우선 지붕의 곡선이 옥은 曲線이란 점을 指摘할 수 있다. 韓國, 中國, 日本의 지붕 特色은 中國系 木造建築의 共通的인 性格이다. 그러나 同一한 木造建築에서도 地域的인 差異에 따라 지붕의 形態는 달라지는데 그 가장 큰 理由는 自然條件이다. 즉 지붕은 超自然的인 災殃으로부터 保護받고자 하는 呪術的인 의미와 건물 전체의 性格, 地位를 規定하는 意匠과 造形도 갖추었다. 그리고 降雨量의 多少에 따라 지붕의 구배는 서로 달라지며 이것은 結果的으로 지붕의 全體造形을 左右對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9)는 地域에 따른 지붕구배 및 지붕 形態의 變化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中部以上과 以南, 中國의 華北과 華南, 日本 등지의 代表的인 建物들의 立面을 스케치하여 比較한 것이다.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建物로는 柱心包式으로 부석사 무량수전(慶北 安東所在, 13세기), 多包式으로 평양 普通門(평남 평양 所在, 1473년)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두 建物이 柱心包와 多包式 建物중에서 比較的인 建立年代가 빠른 편이며 하나는 韓半島의 남쪽, 다른 하나는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比較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9) 韓國, 中國, 日本 등지의 代表적 建物들의 立面을 스케치하여 比較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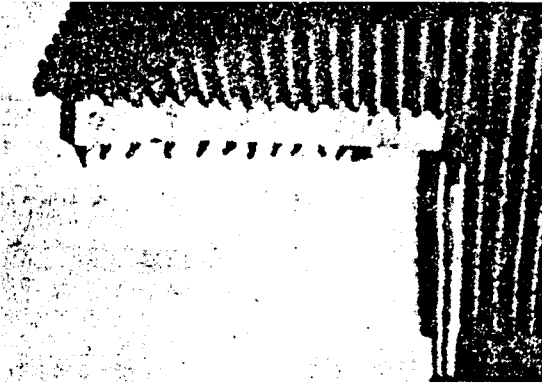
中國建築은 華北地方의 例 3등과 華南地方의 一例을 들었다. 그 중 佛光寺 大殿은 唐末 建築이며 獨樂寺 山門은 元代的인 代表的인 建築으로 두 建物은 모두 우진각 지붕이다. 진사성모전은 우리나라의 多包式 建物과 약간 類似한 構造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세 建物은 모두 北京에서 가까운 곳에 位置하고 있으며 華北 地方의 代表的인 建築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불광사 大殿은 建立年代가 837년으로 밝혀져 南禪寺 大殿과 함께 中國 最古 建物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華南 地方의 建物들은 現存하는 遺構도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 보국사 大殿은 比較的인 華南 地方의 性格을 잘 나타낸 建物이며 일찌기 實測圖面이 公表된 建物이다. 이와 같은 지붕 形狀의 差異는 基本的으로는 降雨量과 같은 自然條件에 의해 決定지워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3) 裝飾과 意匠性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高句麗, 百濟, 新羅 建築에서 치미가 나타나는 데 평양 安鶴宮跡, 新羅 안압지 유적, 百濟의 扶蘇山 廢寺 등에서 完形에 가까운 것들이 出土되었다. 귀면은 기와의 내림마루 및 귀마루 끝이나 사래마구리에 붙인 獸形 裝飾이다. 귀면 역시 建物 內에 雜鬼

12) 박 시익 뜻으로 본 韓國建築樣式의 特徵과 國民性의 關係, 일진사, 1979, 10, No128, p4

가 侵入하는 것을 막는 것이 目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三國時代, 특히 高句麗 瓦堂에서 좋은 例를 볼 수 있다. 雜像은 귀마루에 얹은 여러가지 神像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히 宮殿建築에서 많이 보인다. 雜像은 建物에 따라 그 形狀이 多樣하여 사람이나 動物의 形態를 象徴적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雜像은 朝鮮時代末期까지도 官衙家建物에서 重視되어 朝鮮時代의 工匠중에는 雜像만을 專門으로 製作하는 雜像匠이 있었다.



(그림 10) 雜像

韓國建築의 지붕은 外樣과는 달리 呪術적인 意味에서 重要視되어 왔고 曲線과 曲面에 의한 特性있는 意匠으로 處理되어 왔으며 이것은 中國系 木造建築이 갖는 共通의 特性이었다. 또 韓國建築은 그 처해있는 地理的 條件에 따라 같은 中國系 建築안에서도 서로 區別되는 지붕의 形態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韓國建築의 지붕이 같은 中國系 建築사이에서 그 特性을 나타내는 것은 獨特한 降雨量의 影響과 意匠性에서이며 그것은 지붕을 構成하는 細部의 表現手法에서 基되다고 할 수 있다. 具體적으로는 처마의 曲線, 지붕의 裝飾, 지붕 表面의 材料들을 列擧할 수 있다. 우선 처마의 曲線을 例로 들어볼 때 韓國建築의 그것은 中國이나 日本과 比較하여 技法적으로 매우 古式에 속한다고 하겠다. 즉, 기와지붕의 처마 曲線은 처마 中央의 半曲點이 뚜렷하지 않은 채 左序에서 右序로 緩慢하게 굽은 것일수록 古式에 속하며 時代가 내려갈수록 처마는 中央部가 평형을 이루다가 左右端 가까이에서 갑자기 치켜올려지는 傾向을 띤다.¹³⁾

木造建築의 加構 技法은 대개 盛唐期인 9세기 경에는 완전히 成熟되는데 이때의 中國建築의 처마 曲線은 半曲點이 뚜렷하지 않은 緩慢한 曲線을 나타낸다. (예: 南禪寺 大殿, 佛光寺 大殿) 그러나 現存하는 元代(13세기에서 14세기)의 建築 가운데에는 이와는 뚜렷이 區別되는 처마 曲線, 즉 中央은 水平이고 兩端間이 치켜올려지는 例가 주로 나타나며 이러한 形態는 後代의 明·淸時代의 建築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4. 意味論 考察

韓國이 분명 圓의 形態에 익숙해져 있는 原因은 自然環境의 視知覺 認知때문일 것이다. 韓國은 典型的인 溫帶地帶이다. 四季가 뚜렷하면서 봄과 가을이 길고 夏季에도 그 溫度가 激甚하지 않다. 여름에는 적당한 降雨이 있어 더위를 가시게 하고 겨울에도 三寒四溫이 있어 견디기 쉽다. 韓國의 地質은 老年期의 樣相이며 山은 많으나 둥글둥글하게 깎여서, 소위 가파르고 尖銳한 山勢는 좀처럼 볼 수 없다. 活火山도 없고 濟州道에서의 마지막 熔岩噴出은 西曆紀元 前後의 일이었다. 北韓의 개마高原과 거기서 뿔어나오는 太白山脈 줄기를 除外하면 韓半島

의 넓은 西半部는 완만한 傾斜 平野로서 거기를 여러개의 江이 넓은 溪谷地帶과 충적 平野를 形成하면서 西海로 흐르고 있다. 山에는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가 많고 봄에는 개나리, 철쭉이 아름답고 가을에는 지붕에 말리는 고추가 단풍과 함께 山川을 물들인다. 참으로 아름답고 祈福泉은 自然環境이다. 平和롭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生活環境이다. 山이 둥글둥글하니가 초가집의 지붕도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기와집의 拋物線, 이런 自然環境은 韓國인의 이 自然에 대한 幸福感, 滿足感, 親密感이 결국 韓國美의 軸을 긋는 因의 形態에 變化를 주며 自然主義 形成에 가장 決定的인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自然環境 - 示知覺認知論으로 人工環境으로 發展되어 하나의 軸으로 形成된 對稱의 安定感을 주어 情緒와의 聯關은 우리들 마음의 內的主觀의 構造위에 基礎해 왔고 그럼으로서 一般的 妥當性을 지닌다. 自然界의 左右對稱現狀으로 단풍잎·복화잎... 등을 비롯해서 포플러·회나무·전나무... 등의 植物이든가 나비·풍뎅이 그리고 사람 등의 動物들은 그 形態가 모두 몸뚱이아리의 中心軸 線을 主軸으로 삼고 左右對稱(Symmetria)져 있다. 그 이유는 秩序(regularity)와 균위(Balance)를 위해서였다. 帝王이나 神宮혹은 貴族들의 雄大豪華한 宮殿, 神殿, 邸宅 그리고 公共建築은 이 主軸線 中心의 左右對稱法이 適用되어 權威意識, 威嚴意識을 한층 建築에 應用하였다.

또한 15-16세기에 이르러 人文主義(Humanism)라 일컫는 文藝의 大衆化로 大成했던 것이 또한 建築, 彫刻, 繪畫, 工藝, 音樂의 르네상스 樣式이다. 이중에서도 建築計劃만은 한결같이 이 主軸 中心線의 左右對稱法이 固守되었다.

形態란 본래 求心性을 意味하고 있다. 따라서 場所는 基本的으로 原形이다. 이러한 關係에서 Karl Jaspers의 말을 하면 "모든 實存은 본래 原形으로 나타난다". 原形은 中心과 그것을 둘러싸는 圓周라는 두가지 要素로 되어 있다. 이것이 圓軸形으로 나열되면 이 主軸 中心線이 左右對稱法이 固守된다. 이것이 韓國의 主軸을 中心으로 風水地理라든지 陰陽五行·韓國古建築物 또는 韓服·도자기등이 圓軸形中心으로 우리 固有의 形態美를 知覺 實存空界態로 發展시켜 오늘날 現代 建築 실내디자인에서도 再認識되어 空間에 秩序를 가져다주며 圓形의 多變變이 形狀과 크기의 恒常性(Form and Size Constrancy)에 期待하길 願한다.

5. 結論

自然과 함께 했던 韓國의 아름다움을 생각한다. 그리 큰 나무도 없거니와 그리 큰 山도 없고 새과관 하늘 밑에는 그저 平和의 두 자만이 있다. 초가집의 지붕도 둥글고, 山의 稜線도 둥글고, 눈에 거슬리는 直線은 新作路에서 있는 포플러 뿐이다. 이처럼 둥근 曲線에 대한 愛着이 韓國의 線軸을 中心으로 圓을 그리는 曲線美는 대개 優雅하고 魅力的이며 柔軟, 불명도, 間接, 女性纖細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自然과 함께 自然속에 태어난 生命體의 宿命을 體質으로 謠念하고 있다. 自然的 因으로서의 韓國의 形態美의 가치의 본질을 본다면 예술과 人工環境의 이론이 역사상 거듭되는 동안 美學者에 의해 서로 많은 다른 형식의 정의를 띠어 왔다. 원래 순수한 개념의 美는 自然主義에 입각해서 물리적 객체의 고유성질 그 자체가 美라는 점이였다. 人工環境 가운데 특히 建築 이론에서 美는 20세기 초부터 知覺에 의하여 感情이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느낌(Asthetic Feeling)'으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韓國의 자연적 形態美는 즐거움(Pleasantness)과 동일한 것이다. 美는 知覺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느낌과 정서를 포함하여 정신적 實在에 주어질 수 있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環境에 관하여 人間에게 安定된 이미지를 形成시키는 實在의 空間(Existential Space), 物理的 世界에 대한 認識의 空間(Cognitive Space), 純粹한 論理的 關係에 의한 抽象的 空間

13) 朴彥坤, 韓國建築의 絶對特性에 관한 考察(完), 建築士, 1982, 9, No162, p73

(Abstract space) 등이 그것이다. 實用的 공간은 인간을 자연적이며 [有機的]인 환경과 통합시키며 知覺의 공간은 한 개인으로서의 동일성(Identity)을 얻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창조된 것은 "표시적 공간" 또는 예술적 공간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인식적 공간과 함께 표현적 공간이 갖는 가능한 특성을 체계화시키는 하나의 공간개념이 필요하다. 表現的 空間의 創造는 항상 建築·실내디자인 計劃家의 任務였다. 이런 自然의 視知覺의 認知度 經驗體系로 통하여 自然의 이미지를 形象化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리고 自然을 이해하는 데 重要한 것은 自然기능의 "Process"이며 오직 그 機能에 대해서만 아마도 보이지않는 어떤 힘에 의해 "Design"된 존재(Existence)의 法則이 啓示되어지는 것이라 본다. 우리 韓國의 線 曲線이 視知覺的인 知覺過程의 形態美로 昇華되어 圓과 軸의 드라마틱한 空間的인 演出로 現 建築 실내디자인에 다시 再照明하여 본다. 우리의 魂인 曲線의 柔軟性을 그 부드러운 어머니 가슴같은 空間을 確保하기 위해 광활한 넓은 하늘을 어린아이 다리 사이에 넣어 조그마한 圓을 그리는 포근한 空間을 形態美에 浮刻시켜 韓國다운 우리 線을 찾고 싶은 것이다. 이런 曲線은 한없이 呼訴하는 마음의 象徵이다.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怨恨과 悲哀 또 憧憬이 얼마나 그 線을 통해 남몰래 흘러나오고 있을까? 그 民族은 그럴듯하게도 線의 窓의에 마음의 表現을 택했을 것이다. 形도 아니고 色도 아니고 線이야말로 그 情을 呼訴하는 가장 適切한 方便이었다. 어디에서도 우리는 韓國의 線을 볼 수 있다. 冊床다리에 서랍의 손잡이에도 부채의 자루에도 그리고 도자기, 한복저고리, 길센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숨어 있다. 線의 밀의를 풀지 못하는 한, 누구도 韓國의 마음에 接近할 수 없다. 이런 情緒의 바탕위에 意味가 作用될 때, 知覺과 聯關될 수 있다. 造形을 創造하는 現代 藝術家나 디자이너는 知覺과 情緒간의 自然스런 聯關을 찾는데 매우 興味있는 일이다. 自然環境에서 認知된 韓國의 情緒, 視知覺의 形態美가 人工環境을 計劃하고자 하는 자 가운데 특히 建築家,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魅力있는 問題다.

참고문헌

1. 김 원 룡, 韓國美의 探究, 민중서관, 1978
2. 김 낙 천, 韓國人의 性格, 고려원, 1984
3. 박 규 현, 造形論, 기문당, 1984
4. 박 학 제, 建築哲學으로서의 意匠論, 산업도서출판, 1978
5. 이 흥 우, 韓國의 年輪, 한양제본소, 1977
6. 이 건 호, 디자인 概論, 이화출판사, 1985
7. 안 병 의, 建築 디자인, 리공산업사, 1972
8. 최 하 림, 韓國人의 멋, 지식산업사, 1974
9. Bloomer, Kentc. and Charles W. Moore, 1977
10. New Haven, Body. Memory and Architecture, Yale University Press
11. Christian Norberg-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12. Punkt Und Linie Zu Flache, 1978
13. Jack L. Nasar, Environmental Aesthetics, N,Y :merdith Corp, 1988
14. Jonathan Miller, Image and Understanding N,Y : Cambridge Univ. Press, 1991
15. Corwin Bennett, 人間을 위한 空間, 김광문역서, 1984
16. Robert Sommer, 個人의 空間, 이경희역서, 1983
17. Amos Rapopor, 住居形態와 文化, 이규목역서, 1985
18. 주 남 철, 人間 建築 그리고 軸(Axis), 建築士, 1976
19. 최 중 현, 古代 聚落의 空間 構造, 建築士, 1981
20. 송 민 구, 우리나라 옛 造形의 意味, 建築士, 1984
21. C. A. 피들라, 造形藝術論, 정 미희 역서, 미진사, 1985
22. 정 인 국, 韓國 建築式論 일지사, 1978

(접수 : 1995. 10. 28)